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유혜령	학번	
휴대전화		이메일	cash1982@naver.com

대학원명	(대학원 /전공) 시라큐스 대학원 맥스웰스쿨/ 행정학 (국가) 미국		
기 간	1년	[귀국일:2015년 12월 29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6년 1월 14일

신 청 인 : 유혜령 (인)

I. 기관개요

- 훈련국 : 미국
- 훈련기관명: 시라큐스대 맥스웰스쿨 (Maxwell School of Citizenship and Public Affairs, Syracuse University)
- 인터넷 웹주소 : <http://www.maxwell.syr.edu>
- 주소(전화번호) : Syracuse, NY 13244-1020 (315-443-2252)

II. 현지생활 소개

- 입출국 이동경로(출발지-경로지-도착지) 및 소요시간
 - 출발지: 인천(ICN) → 경로지: 뉴욕(JFK) → 도착지: 시라큐스(SYR)
 - 총소요시간: 약20~27.5시간 (경유지에서의 대기시간에 따라 차이)
 - * 비행시간: ICN → JFK 14시간, JFK → SYR 1.5시간 소요
- 기후
 - 4계절중 겨울이 가장 길고 추우며 눈이 많이 옵니다. 한겨울에는 통상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계속되며, 가장 추울 때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기도 하며, 5월초에도 눈이 오기도 함
 - * 2015년 겨울(1월~3월)은 시라큐스 역사상 2번째의 추위로 기록
 - 봄은 짧으나 여름은 청량하고 쾌적한 날씨로 습도도 그다지 높지 않아 일상생활을 하거나 야외활동을 하기에 매우 좋음
 - 가을에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근처 이름난 와인 양조장 (winery) 투어가 이 시기에 인기임
- 물가수준
 - 뉴욕주의 물가수준은 미국 전역중 2위*로 높은 수준이나, 시라큐스는 뉴욕시티(NYC) 등 도심지역에 비하면 집값, 외식비 등이 상대적으로 저렴함
 - * Tax foundation(<http://taxfoundation.org>)에 따르면 \$100의 실제가치 환산시 District of Columbia가 \$84.96로 가장 낮으며, 뉴욕주가 \$86.73로 두 번째로 낮음
 - 외식비는 팁(15~20%) 포함시 최소 10여불 이상은 소요됨
- 이동통신사
 - Verizon, AT&T, T mobile 등이 주요한 이동통신사로 Verizon은 워싱턴 DC 지하철내에서 유일하게 송수신이 가능
 - 국내에서 유심칩을 구매해서 개통을 해가는 방법도 있으나, 이용가능한 통신사 및 요금상품의 선택폭이 넓지 않아 현지에서 개통을 하는 방법이 더욱 경제적인
 - Verizon, AT&T의 통화품질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캠퍼스 권역 및 식당·카페 등 공공장소에서의 와이 파이(Wifi) 이용 등을 통해 보완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
- 전기
 - 110V 기본으로 한국에서 가져온 전자기기(노트북, 휴대폰 충전기) 사용을 대비하여

110V용 (돼지코) 콘센트를 몇 개 가져오는 것이 편리함

○ 주택임차 및 비용

- 학교기숙사의 경우 학부생들에게만 제공하므로 대학원생들은 이용할 수 없음
- 따라서 대학원생들은 캠퍼스 근처, 다운타운 등에 주택을 따로 임차하여 사는 경우가 대부분임
- 주택 정보는 북미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크레이그스리스트(craigslist) 웹사이트에서 편리하게 구할 수 있음
- 납힐(Nobhill) 아파트가 저렴한 편(원베드기준 월 720불 수준)
- 1년정도 싱글이 살기에는 가구 및 인터넷 환경이 갖추어져 있고 학교·마트로 셔틀이 다니는 Copper Beech Commons도 추천할만함 (2인실~4인실, 월 900~1100불 수준)

* 홈페이지: <http://copperbeechcommons.com>

○ 대중교통

- connective corridor, centro 버스 등 셔틀이 다니는데 대체로 무료이며, 운행정보는 parking.syr.edu를 통해 확인가능
- 콜택시로는 suburban taxi를 주로 이용하는데 기상이 좋지 않거나 수요가 많을 경우는 바로 택시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예약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음

○ 의료보험료

- 2015년 8월부터 학교보험정책이 변경되어 학생들은 일괄적으로 aetna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1년 \$1,890, 1학기 \$810)는 학비등과 함께 bill에 청구됨
- 이미 다른 보험에 가입된 경우 학생보험담당자와의 상의를 통해 학교보험 waiver 절차를 진행하는데 기 가입보험이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waiver를 받을 수 있음
- 개인적으로 학교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의료비 청구(claim)나 보험료 납부절차 측면에서도 편리하며, 보험혜택 또한 한국에서 가입해가는 보험에 비해 포괄적임

* 정신과 상담, 여성의 경우 임신진료 등의 보험혜택 포함

○ 학업생활 등 전반

- 시라큐스대학 예비지원자 등에게 답변한 Q&A로 대체 (붙임1, 2)

○ 기타 참고사항

- 시라큐스 한인학생회 홈페이지:
<http://www.syrksa.org>/<https://www.facebook.com/groups/KSASUGrad/>
- 시라큐스대학 국제학생 지원센터(Slutsker Center) 홈페이지:
<http://international.syr.edu/>
- 시라큐스 학생 의료센터: <http://health.syr.edu/>

III. 인턴십 프로그램

-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의 직무경험을 권장하여 DC소재 시설을 활용한 학위+직무 연계과정인 Maxwell in Washingto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본인은 세계자원기구(World Resources Institute)에서 6주간 교통분야에서 Independent Study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작성, 제출

< Maxwell in Washington Program >

Maxwell School에서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MPA) 또는 Master of Ar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MAIR)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경우 졸업을 위해 관련분야에서의 직무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따라 매학기마다 워싱턴 DC에서 학점이수+인턴십 연계 프로그램 (Maxwell in Washington)이 개설되어 직업경력 관리 및 네트워킹의 혜택 제공

2014년의 경우 DC에 소재한 82개 기관(정부, 비영리조직, 싱크탱크, 민간조직 등)에서 130여개의 인턴십 자리가 맥스웰 학생들에게 제공됨



붙임1 학교생활 등 전반 Q&A

1. 학업진행 관련

1) 시라큐스가 이수과목이 8과목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학업난이도가 높다는 평이 들리던데, KDI와 비교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난이도가 높은지?

어떤 과목을 듣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별히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님. 영어를 이해하고 본인의 의사전달을 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음. 다만 수업전에 많은 리딩을 요구하는 과목들이 있어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제학생의 경우 버거우다고 느낄 수 있음. 또한 KDI는 일방적인 한국식 교수법으로 수업을 하나 미국특유의 토론, 그룹활동 등의 수업은 KDI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것은 사실임. 하지만 이는 특별히 시라큐스 대학만의 특징은 아니고 다른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비슷하다는 평.

2) 토플성적이 100점인데 별도의 ESL 과정은 듣지 않아도 되는지?

ESL은 graduate student의 경우 학기를 다니며 듣는 경우는 없음 (본인이 ESL에 직접 문의해봄). 보통 학기 다니기 전에 어학원 다니는 식으로 듣는데 보통 ESL는 한학기 정도의 컴팩트한 과정(매일 수강)이기 때문에 학기 시작직전에 미국에 들어가는 KDI학생의 경우 들을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것임. 봄학기 재학중에 문의해보니 graduate student가 학기 다니며 듣는 사례는 없다며 오히려 학교 영문학 관련 수업 들어보는 것이 어떠하냐며 추천해줌.

3) 학사일정을 보면 여름방학이 약 3.5개월에 이르는 걸로 보이는데, 여름학기에 별도로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는지?

필요한 학점을 채울자신만 있다면 여름학기를 들을 필요는 없으나, 가을학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두과목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봄. 여름에 워싱턴 DC에서 제공하는 수업(6주)도 있는데 학점도 채우고 워싱턴의 생활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음. 하지만 가족여행 등에 관심이 더 많다면 자율적으로 시간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

4) 시라큐스에서 2과목 웨이버 받기 위해 특별히 KDI에서 수강해야하는 과목이 있는지? 특별히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 있다가 보다는 웨이버를 받기 위해 스태프들에게 KDI에서 수강한 2과목 syllabus와 본인이 그 과목을 수강했다는 증빙(sealed transcript를 KDI로부터 받아 제출)만 하면 스태프들이 판단해서 웨이버를 해줌.

2. 등록금 관련

1) KDI 자료에는 등록금이 \$4만불이라고 나오고, 시라큐스 홈페이지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등록금, Activity Fee, Health Service 포함 약\$3만4천불로 보여지는데 실제 인보이스 기준 등록금이 어느정도인지?

시라큐스 tuition은 듣는 학점에 비례해서 증가. 한학점당 약 1341달러. 그외의 항목은 지난학기의 경우 health and wellness fee \$347, executive education fee \$40, graduate

student org. fee \$30 정도였음 자세한 사항은 학교 bursar 홈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음
(bursar.syr.edu)

3. 생활 & 가족

1) 학교에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있는지? (주택,자동차,계좌개설 등)

따로 지원해주는 서비스는 없는 것으로 앎. 보통들 본인이 알아서 주택마련, 계좌개설 등을 함. 계좌개설은 기본영어만 구사할 줄 안다면 어렵지 않음. 국제학생들의 경우 Slutzker international student center(<http://international.syr.edu/>)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편인데 아마 질문에 답변을 주긴 할테지만 정착 지원서비스를 따로 주는 것 같지는 않음. 아마 학교측에 물어보면 주택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몇 개 소개해줄 것임. 주택의 경우 대학원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craigslist (www.craigslist.org) 라는 온갖 거래장터로 유명한 곳에서 검색해보는 것도 방법임.

2) 현재 거주하시는 곳, 또는 추천할만한 거주지는?

Copper beech commons (<http://copperbeechcommons.com/>)라는 가구가 다 갖추어져 있고 학교와 가까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방은 2인실에서 4인실(다른 학생들과 거실, 부엌, 화장실 쉐어함)까지 있고 셔틀을 운행하여 편리하나 가족단위로 거주할만한 방이 있는지는 모르겠음. 국제학생들의 경우 nobhill apartment(가구는 갖추어져 있지 않으나 저렴하다는 평)에도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3) 와이프 영어공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추천해주실만한 곳은?

Slutzker international student center (<http://international.syr.edu/>)에서 학기초에 희망자 모집을 통해 영어대화 그룹을 배정해주며 무료임. 일주일에 한번정도 leader주도 하에 한시간씩 대화. 하지만 어떤 leader를 만나느냐 어떤 구성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음. ESL도 컴팩트한 과정으로 집중력 있게 공부하기는 좋을 것 같으나 학비가 매우 비쌈

붙임2 교과과정 Q&A

1. 필수 2과목인 Executive Education Seminar와 Fundamentals of Policy Analysis 외에 1과목 더 찾고 있는데 혹시 추천해주실만한 과목이 있으신지요?

우선 제가 한학기 먼저 수강한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봄학기에는 Midcareer training (교수님: Broadnax, 현재 은퇴. 현 과목명칭은 Executive Education Seminar로 과거핸드북이랑 과목명칭이 다름), Science and Technology and Public Policy(교수: Henry Lambright), Economics of Environmental Policy(교수: Peter Wilcoxon), Social Media in Public Sector(교수: Ines Mergel) 이렇게 4과목 수강

- Midcareer Training: 토론수업으로 케이스를 미리 읽어온후 자유롭게 토론하는 수업인데 모국어가 아닌 학생이자 토론 교육이 익숙지 않은 한국학생으로는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실 미국학생들도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는 장점 외에는 그리 심도있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초반에 Broadnax 교수님께 면담요청해서 제 어려움을 이야기하니 니 영어는 괜찮으니까 용기내서 하라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미리 읽은 후 예상질문(3-5가지정도)과 답변을 미리 적은 후 연습해서 갔더니 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적응이 좀 되면서 예상한 질문과 다른 질문이 나와도 답변할 수 있는 배짱도 좀 생겼구요. (학업로드: 토론, 조별보고서+발표)

- Science & Tech.: 소수 강의였는데 약간 우리나라식 교수법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노교수님이 술술 풀어주는 미국의 과학정책 관련 행정의 역사강의를 듣는 느낌! 중간중간 질문과 토론도 할수 있지만 교수님이 많은 것을 전달해주려는 의지가 강해서인지 편하게 듣고만 있어도 시간이 잘 가더라구요. (학업로드: 조별보고서+발표, 교수님이 지정해주시는 책 5-6권에 대한 리뷰작성)

- Environmental Policy: 미시경제학 수업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학 지식 베이스가 있으시다면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경제학 복수전공을 한적이 있어서 듣기 편했습니다. 교수님도 무척 친절하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도 굉장히 잘해주시구요. (학업로드: 거의 매시간 내주시는 숙제, 개인이 연구주제 지정해서 쓰는 보고서, take home exam)

- Social Media: 자질구레하게 시키는게 많지만 사실 뜯어보면 귀찮다는 거 외에는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미국학생들에게는 악평(독일교수님이라 리액션이 친절하지 않고 딱딱하다, 기대수준이 너무 엄격하고 일관되지 않다는 사유), 외국인학생들에게는 호평(배우는 바가 많다, 피드백이 분명해서 좋다)을 받아 평이 엇갈리는 수업입니다. (학업로드: 짧은 블로그 5회, 짧은 조별과제 2개, 큰 조별과제 1개+발표)

여름학기에는 Independent Study(Academic Advisor 지정해서 연구주제 정한 후 보고서 제출), Public Budgeting(교수: Bifulco) 2과목 수강

- Independent Study: 이걸 전적으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하기 나름인데, 저는 워싱턴 DC에서 인턴십을 하며 교통안전 분야를 주제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Public Budgeting: MPA학생들의 필수과목이고, 여름학기 3주동안 하느라 빡세게 고생했습니다. 잦은 조별과제와 숙제, 시험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기도 했지만 회계쪽에 배경지식이 있다면 조금 나을수도 있겠네요.

여태까지의 경험상으로는 제일 스트레스가 덜했던 과목 순서대로 나열하면 Environmental Policy, Science & Tech, Social Media였고, 나머진 좀 빡빡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 10페이지 이상의 개인과제와 멤버조합에 따라 호불호가 엇갈리는 조별과제는 어떤과목이든 솔직히 좀 힘들었습니다. 개인과제는 미리미리 하시고 조별과제는 가급적 미국학생들과 같이 하는게 로드를 줄이는 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든 사실 열심히 하기 나름이라 관심이 있는 과목을 택하고 열심히 하신다면 결과도 좋게 나올 거예요. 저는 봄학기 과목은 모두 A를 받았습니다.

2. Executive Education Seminar의 경우 토론수업일 것 같은데 난이도가 어떤지, 띄엄띄엄 이야기해도 수업을 따라갈만한지 궁금합니다

위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대신해도 될 것 같네요. 다만 제가 들던 교수님은 은퇴하셔서 다른 분이 하실텐데 어떤 교수님은 거의 매시간 숙제가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누구였는지 잘 기억이 안나네요. 그냥 본인 생각 조리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정도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막 정신없이 지나가서 저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영어가 다소 어색해도 미국사람들 특성상 인내심있게 다들 들어줍니다.

3. Peter Wilcoxon 교수님 강의가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이번 학기에 Economics for Public Decisions(MPA 필수과목)와 Climate Change: Science, Perception and Public Policy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 과목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정보가 있으신지요?

둘다 들어본적 없는데 월콧슨 교수님 강의 개인적으로 강추합니다. 미시경제 베이스가 있다면 문제없지 않을까 싶네요. 교수님 홈페이지가 있는데 한번 실라부스 참고하시면 어떨까요? (wilcoxen.maxwell.insightworks.com/)